

유기불안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오 남 경

이 영 순[†]

전북대학교

본 연구는 유기불안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유기불안 척도의 문항제작을 위하여 문헌연구와 기존척도 분석, 그리고 대학생들과 대학상담자들을 대상으로 그룹토의 및 반구조화 설문지의 분석을 통해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이후 전문가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내용타당도와 안면타당도 검증을 통해 6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예비척도를 개발하였다. 척도개발을 위해 예비척도를 대학생 4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3개의 하위요인(유기감, 거절/거부하기, 의존/매달리기) 27문항이 추출되었다. 유기불안 척도 전체의 내적 합치도는 .93이었으며, 하위요인은 .85~.91로 나타났다. 대학생 760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3요인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 유기불안 척도와 유기도식척도, 대인관계문제척도,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한국어판 수용-행동질문지, 자존감척도, 그리고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와의 상관을 검증한 결과 유기불안척도의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그리고 공인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유기불안, 유기감, 대상관계 패턴

* 본 연구는 오남경(2015)의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기불안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를 수정·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 이영순,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5489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Tel : 063-270-2928, E-mail : leeys@jbnu.ac.kr

Freud(1926/2010)는 인간의 불안이 발생하는 두 가지 결정요인으로 어머니로부터의 분리를 상징하는 출생 시의 불안과 어머니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아이가 갖는 불안을 말하였다. 개인의 불안은 대체적으로 생의 초기에 무력한 상황에서 보호막이 되어 주는 주요 대상을 상실할 것에 대한 위협을 그 외의 다른 위협들에 비해 너무 확대시켜 생각한 것에서 생겨나며, 그 결과 심리내적으로 아동기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다. 불안은 발달의 매 시기마다 특유한 형태로 나타나는데(Freud, 1933/2006), 대상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남근기에 거세불안으로 변형되고 남근기의 다음 단계에서는 초자아의 위치에 있는 대상의 사랑을 잃는데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나타난다(Quinodoz, 2005/2013). 생애 초기에 경험한 어머니와의 분리와 사랑의 상실에 대한 불안은 발달 시기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나 그 기저에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머니와의 분리와 사랑의 상실에 대한 불안은 일반적으로 분리불안(分離不安, separation anxiety)이라는 용어로 통용되어 왔다. 분리불안에 대해서는 초기의 정신역동적 이론가들(예, Bowlby, 1960; Fairbairn, 1944; Klein, 1961)을 포함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연구자들이 그 원인과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초기 이론가들의 설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lein(1937, 1961)은 대상을 영원히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분리불안이 일어나며, 이로 인해 외적 대상에게 집착하고 분리를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았다. Fairbairn(1946, 1963)은 대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이가 경험하는 가장 큰 불안의 원천이라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아이가 자신이 부

모에게서 진실로 사랑받고 있고, 자신의 사랑이 부모들에 의해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부모에게 안전하게 의존할 수 있다고 충분히 확신하지 못할 때 분리불안이 일어난다. 또한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좌절과 대상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불안은 양가감정을 유발하며, 이러한 양가감정을 처리하기 위해 대상의 내재화 및 내적 대상관계 패턴의 형성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Bowlby(1960)는 아이가 매달리고 우는 등의 애착 행동을 보이는 것을 분리불안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추동을 만족시키는 어머니의 상징이 부재할 때 유발된다고 하였다. 그는 과도한 분리불안의 원인을 불우한 가정환경과 원활하지 못한 가족 간 소통으로 인한 불안 애착에 의한 것으로 보았으며, 분리불안이 극도로 낮거나 없는 것은 무의식적 방어기제 때문인 것으로 밝혔다. A. Freud(Fonagy & Target, 2003/2014)는 최초로 아이는 어머니가 자신의 일부가 아니며, 자신의 통제 하에 있다는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는 데, 이 단계에서 어머니와의 분리가 진정한 의미의 분리불안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았다. 분리불안은 대상상실의 두려움에 뿌리를 둔 것으로 보았으며, 과도한 분리나 신뢰할 수 없는 어머니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이로 인해 대상의 내재화와 더불어 대상의 사랑을 상실하는데 대한 두려움이 뒤따른다고 보았는데, 상실에 대한 초기의 두려움은 멸절이나 완전한 무력감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반면, 사랑 상실의 두려움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유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현대에 통용되는 분리불안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아이가 부모에게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며 울음 등으로 반응하는 형태

의 행동(Coddington & Wallick, 1990/2002), ‘유아가 모친에서 처음으로 떨어질 때에 나타나는 반응(흥분, 울음 등)(대한간호학회, 1996)’, 또는 ‘영아가 애착 대상인 어머니나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자리에 없을 때 어머니가 떠난 것에 대해 울거나 몸부림치거나 불쾌함을 표현하는 현상(한국교육심리학회, 2000)’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는 대상과의 분리 그 자체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기존의 이론가들이 설명하는 분리불안 개념과 차이가 있다.

이에 최근에는 분리불안과 유기불안(遺棄不安, abandonment anxiety)을 구분하는 시도가 있다. Brisch(1999/2003)에 의하면 대상 영속성 획득의 시점을 기준으로 분리불안과 유기불안의 구분이 가능하다. 영아가 대상 영속성을 획득하지 못했을 때는 어머니가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면 아이에게 어머니는 완전히 사라진 사람으로 경험되므로, 영아는 대상을 상실할 것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대상 영속성을 획득한 이후에는 실제로 분리가 일어났을 때만 분리불안이 나타나며 대상 영속성을 유지하는 시간 동안은 분리불안과 대상을 상실할 것에 대한 공포에 견딜 수 있게 된다. Campi, Besuschio, Oswald, Basili와 Basili(2014)는 분리불안과 유기불안의 차이에 대해, 분리불안은 아이의 시선에서 어머니가 사라졌을 때 경험하는 것으로, 유기불안은 아이가 어머니에게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즉 어머니로부터 떠나야 하는 심리적 독립의 순간에 혼자가 되는 것에 직면하는 동시에 어머니가 자신을 내치고 버리는 것은 아닌지, 어머니에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어머니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는 것은 유기불안

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분리불안은 어머니와 분리되는 것 자체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대상과의 분리 및 재결합 과정에서 일어나는 내적 역동에 더 초점이 맞추어진 유기불안과는 차이가 있다.

분리불안과 유기불안에 대한 이와 같은 구분은 Freud(1926/2010)가 유아의 불안을 대상의 상실에 대한 불안, 그리고 대상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와 관련된 불안으로 구분한 것과 그 흐름을 같이 한다. Freud가 말하는 불안 중 대상의 상실과 관련된 불안은 자동적이고 불수의적인 불안이며, 대상 상실의 공포와 관련된 불안은 융합과 의존욕구 충족에 대한 신호로서의 심리적인 불안이다(Quinodoz, 2005/2013). Mahler(1968) 역시 분리불안, 그리고 대상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염려 간의 차이를 구분하였다는 점으로 보아(Stevens & Gardner, 1994), Freud(1926/2010)와 Mahler(1968)는 분리불안과 유기불안을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상의 상실에 대한 불안보다도 대상으로부터 애정을 잃는 것에 대한 불안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위험이라는 Freud(1926/2010)의 관점은 분리불안보다도 유기불안이 개인의 건강한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유기불안과 분리불안을 혼용해온 까닭은 이들이 대상의 상실에 대한 불안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Freud(1926/2010)의 불안에 대한 설명과 Campi 등(2014)의 분류에 따르면, 유기불안은 심리적 차원에서 독립의 부재, 즉 원시적 융합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리고 분리불안은 시각적 부재와 더욱 관련된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유기불안이 의식에 의해 진행되기보다는 무의식에 각인되어

있으면서 관련 자극이 있을 때 수시로 떠올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김은영, 2009; 임종렬, 1993; Masterson, 1988/2000)을 반영하면, 유기불안은 '실제적인 대상의 부재와는 별개로 심리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대상의 사랑을 상실하거나 대상에게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기인한 불안이며, 개인의 내적 정서로 경험되고 태도로 드러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유기불안은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점차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개인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내적 기능, 신체적인 기능,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유기불안의 느낌들을 방어하기 위해 조정되기 때문이다(Masterson, 1976). 유기불안은 일생을 거쳐 재활성화되기에(Stevens & Gardner, 1994) 성인이 된 이후라 할지라도 개인이 내·외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외부로 표출되어 더욱 선명히 드러날 수 있다. 성인이 경험하는 유기불안에 대한 사례보고들(김미란, 2002; 임종렬, 1999; Celani, 1995/2006, 2010; Masterson, 1972, 1976)을 살펴보면, 세 가지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특징은 유기불안으로 인해 관계에서 버려질 것 같은 느낌, 즉 유기감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Masterson(1976)은 청소년과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유기감을 유기우울증이라 명명하고 우울, 분노, 공황과 공포, 죄의식, 수동성과 무기력, 공허감과 폐기감의 여섯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합성된 느낌이라 설명한 바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특징은 유기불안으로 인해 나타나는 대상관계 패턴으로, Fairbairn(1944, 1946)이 말하는 내적 부분 대상 표상인 리비도적 자아(libidinal ego)와 반리비도적 자아(antilibidinal ego)가 대상과 관계하는 패

턴과 관련된다. 즉, 덜 공허하고 덜 외로우며, 버려진다는 느낌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인과 미분화된 관계패턴을 보이거나, 버려진다는 느낌을 받는 것을 미리 차단하여 안전한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과 가(假)분화된 관계패턴을 보이는 것이다.

Fairbairn(1963)은 유아가 유기불안을 처리하기 위해 거절하고 방치하는 양육자를 내재화하여 자신의 내부에 분리하여 억압하고 외부의 실재하는 대상은 좋은 대상으로 남겨놓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 때 분리하여 억압된 측면은 심리내적 구조인 대상관계 형성의 시작점이 되는 동시에 이후에 드러나는 대상관계 패턴의 특징적 요소가 된다(Scharff, 2005). 즉, 유기불안과 관련된 내·외적 자극을 경험할 때 대상관계 패턴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Fairbairn이 제시한 두 가지 대상관계 패턴은 이후의 연구자들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Masterson(1978)이 말하는 보상적 대상관계의 부분 단위(The rewarding object-relations part-unit)와 철회적 대상관계의 부분 단위(The withdrawing object-relations part-unit), 그리고 Celani(1995/2006)가 말하는 희망자기(Hopeful self)와 상처받은 자기(Wounded self)의 특징과도 그 흐름을 같이 한다. 두 가지 대상관계 패턴은 주로 우세한 한 가지의 패턴이 반복되어 나타나게 되지만(Fairbairn, 1944, 1949), 상황과 대상에 따라 두 가지의 패턴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도 관찰된다(Celani, 1995/2006, 2010, 2005/2011).

유기불안에 대한 기존의 문헌들은 유기불안이 부모의 양육방식(임종렬, 김순천, 2001; Tosone, 2005; Zinner, 1976), 초기의 불안정한 애착(Fonagy, 1991), 그리고 대인관계에서의 반복되는 갈등(Tosone, 2005)과 관련이 있음을 명

시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주 양육자와 자녀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유기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을 때 유아기의 자녀는 회피 및 저항을 보였으며(Mayseless, Sharabany, & Sagi, 1997), 유기에 대한 불안 및 공포는 불안 애착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Campbell, Simpson, Boldry, & Kashy, 2005; Beck, 2006). 또한 유기불안은 적대감, 분노, 그리고 불안 등의 정서(이지영, 손정락, 2009; Stopa, Thorne, Waters, & Preston, 2001)와 부적응적 방어기제(조성호, 2001a)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성인의 유기불안이 친구와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Mayseless et al., 1997),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Campbell et al., 2005; Cassidy & Berlin, 1994)들과 함께 유기불안이 대인관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예측하게 한다. 또한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석지은, 2008; 이설아, 2009; Godbout, Lussier, & Sabourin, 2006)이라는 연구 결과들은 유기불안이 개인의 삶의 이면에 강하게 작용하는 요인임을 예측하게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초기 성인기의 유기불안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는 유기불안이 언어를 이해하기 이전의 단계인 유아기에 처음 발생되어 정서적으로 경험된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탐색할 수 있다. 유아기의 강력한 정서적 경험은 무의식에 저장되어 성장하는 과정에도 유지되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방어하거나 은폐되어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Chodorow, 1978/2008), 성장 과정에서 유기불안이 재경험되더라도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이며 방어로 인해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Masterson, 1976). 따라서 유기불안

이 증상으로 선명하게 나타나는 경계선적 성격장애와 달리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유기불안을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기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적절치 않다는 점은 유기불안의 경험적 연구를 진행하는 데 한계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국내의 연구에서 유기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도구는 Gunderson과 Kolb(1978)에 의해 개발된 경계선을 위한 진단적 면접도구(The Diagnostic Interview for Borderlines: DIB)와 조복희와 박성옥(1992)에 의해 개발된 어머니의 격리불안 척도, 이주혜(1980)가 개발한 유아의 격리불안 척도, Kurdek와 Berg(1987)가 제작한 부모의 이혼에 대한 자녀의 신념 질문지(Children's Beliefs about Parental Divorce Scale) 중 유기공포 하위 척도를 정연옥(2007)이 번안하여 사용한 지각된 유기공포 질문지(Fear of abandonment), 그리고 Young(1990)의 초기 부적응 도식 질문지 중 유기도식 하위 척도였다. 이 외에도 외국의 경우 경계선적 성격장애를 측정하는 Borderline Personality Questionnaire(BPQ)의 Abandonment 하위척도가 유기감 측정에 사용되었으며, 신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 애착 차원인 친밀함에 대한 회피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불안을 평가하는 Attachment to God Inventory(Beck & McDonald, 2004), 그리고 Attachment Concerns Questionnaire(Hazan & Shaver, 1987)의 문항들 중 세 문항이 유기에 대한 공포를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다(Mayseless et al., 1997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척도들은 유기불안을 측정하는 데 두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는 대상에 대한 제한점이다. 기존의 척도들은 어머니(조복희, 박성옥, 1992), 유아(이주혜, 1980) 또는

경계선적 성격장애(Gunderson & Kolb, 1978)나 만성적인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어 심리 치료를 필요로 하는 내담자(Young, 1990)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되어 사용되어왔다. 유기불안은 생애 초기에, 그리고 분리-개별화에 실패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으며(임종렬, 김순천, 2001),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성격구조 및 타인과의 관계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Tosone, 2005). 따라서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일반 성인도 유기불안을 경험할 수 있으며, 유기불안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는 부재하였다.

둘째는, 측정하는 구성개념에 따른 제한점이다. 기존 척도들은 사용 대상이 한정되어 있었기에 측정하고자 하는 변인도 유기불안의 결과로 나타나는 아동과 어머니의 분리불안 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지거나(이주혜, 1980; 조복희, 박성옥, 1992), 실제 부모의 이혼에 의해 나타나는 명백한 심리적 변화와 공포를 측정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정연옥, 2007; Kurdek & Berg, 1987). 그렇지 않은 경우 경계선적 성격장애를 측정하기 위해 유기감과 관련된 문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정도여서 일반인들에 해당되지 않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거나(Gunderson & Kolb, 1978), 만성적인 성격장애 내담자를 측정하는 데 초점이 있어(Young, 1990) 일반인들의 수준에서 반응하기 어려운 수준의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개념에 따른 제한점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다시 확인된다. 유기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는 유기도식 척도(Young, 1990)의 문항을 살펴보면, ‘내 곁에서 나를 돌봐줄 수 없는 사람인데도 자꾸 매달리

게 된다.’ 또는 ‘때로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 것 같은 걱정을 떨치지 못해, 아예 내가 그들을 먼저 멀리해버리고는 한다.’와 같이 두 가지 대상관계 패턴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은 포함되어 있으나, 유기불안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외에도, 유기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애착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유기불안을 불안 애착과 동일한 개념처럼 설명하거나(Doumas, Pearson, Elgin, & McKinley, 2008), 불안애착의 특징 중 하나로 유기불안을 설명하여(Alonso-Arbiol, Shaver, & Yáñez, 2002) 유기불안을 애착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기존 측정도구들의 측정 대상의 제한과 구성개념의 한계는 유기불안의 경험적 연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해왔다. 초기의 정신역동적 이론가부터 현대의 대상관계 상담자에 이르기까지 유기불안의 중요성과 영향력은 꾸준히 발견되고 언급되어왔지만,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척도가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 척도들의 구성개념의 한계를 이해할 수 있다. 이론가 및 상담 실무자들은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성격구조의 형성과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Stevens & Gardner, 1994; Tosone, 2005), 그리고 관계의 갈등과 삶의 방식(임종렬, 1993, 1999; Celani, 1995/2006, 2010, 2005/2011)에 유기불안이 영향을 미침을 주장한다. 실제로 정신역동적 관점에서 사례를 기술한 자료들(임종렬, 1993; Celani, 1995/2006, 2005/2011; Scharff & Scharf, 1991/2003; Tosone, 2005)을 확인하면 성인들이 경험하는 갈등의 원인과 지속 요인으로 유기불안이 지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를 명확히 검증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부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유기불안에 대한 이론적 관점들과 사례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유기불안 척도를 개발하고 그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방 법

예비연구

예비연구는 유기불안을 측정하는 문항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유기불안에 대한 연구들과 문헌들을 종합하여 ‘유기불안은 실제적인 대상의 부재와는 별개로 심리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대상의 사랑을 상실하거나 대상에게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기인한 불안’으로, ‘내적 정서로 경험되는 동시에 외적 태도로 드러난다.’고 개념적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Masterson(1976)이 제시한 유기불안의 정서적 특징, 그리고 Fairbairn(1944, 1946)과 그 이후의 이론가들(Celani, 1995/2006, 2010, 2005/2011; Masterson, 1976)이 제시한 두 가지 대상관계 패턴을 유기불안의 세 가지 구성개념으로 보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유기감’이다. 유기감은 유기불안으로 인해 복합적으로 경험하는 정신내적인 경험으로, 유기불안의 정서적 특징을 대표한다. 이는 대상의 사랑을 상실할 것 같은 두려움과 대상으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불안을 포함한다(Fairbairn, 1994; Klein, 1961). 또한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은 우울, 분노, 공포, 죄의식, 수동성과 무기력, 공허감과 폐기감을 포함하는 복합적 느낌으로 드러난다(Masterson, 1976, 1988/2000).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유기불안을 가진 개인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유기불안의

느낌들을 방어하기 위해 나타내는 두 가지 대상관계 패턴을 반영한다. 이는 개인의 태도를 통해 측정이 가능한 지표로, 첫 번째 대상관계 패턴인 ‘거절/거부하기’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분리된, 차단하는, 철회된, 그리고 가분화적 관계를 추구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유기불안과 관련된 자극으로 작용하는 부정적 경험을 분리하고 회피하여 관계를 유지하는 태도를 보인다. 두 번째 대상관계 패턴인 ‘의존/매달리기’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융합된, 말려든, 삼켜진, 그리고 미분화된 관계를 추구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포기하는 태도를 보인다(Celani, 2010; Fairbairn, 1994; Masterson, 1988/2000).

이러한 구성개념을 반영하는 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첫째, 여러 경험적 연구에 드러나는 유기불안의 특성들과 기존의 유기불안 관련 척도들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나의 부모님은 내가 어린 아이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 같다.’, ‘버림받고 있다는 기분에 죽을 것 같은 때가 있다.’와 같은 253개의 문항을 수집하였다. 둘째,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상담자 6명을 대상으로 그룹토의 자료 및 반구조화된 설문지 응답을 수집하였다. 셋째,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122명을 대상으로 유기불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그룹토의를 진행한 후, 비구조화 설문지 응답을 수집하였다. 상담자와 대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하여 ‘누군가가 다가오더라도 어차피 떠날 것이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대한다.’, ‘마음을 털어놓고 지내는 사람이 없어서, 타인과 함께 있어도 외롭다.’ 등과 같은 174문항을 수집하였다.

문헌연구 및 기존 척도 분석, 상담자 그룹토의 및 반구조화 설문지, 대학생 반구조화

설문지를 통해 나온 응답들은 본 연구자와 상담심리 박사과정 2명이 함께 분류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유기감 238개 문항, 의존/매달리기 110개 문항, 거절/거부하기 83개 문항의 총 431개 문항이 예비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척도 개발의 예비문항은 개발될 검사가 포함하게 될 문항들에 비해 최소한 2배에서 3배, 혹은 그 이상의 문항수로 제작하고, 이러한 문항풀(item pool)로부터 검사의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문항들을 선정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김남걸, 2001; 김영환, 문수백, 홍상황, 2013; 탁진국, 2014), 유기불안은 무의식적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자기인식 부족으로 인한 반응의 어려움 및 자기방어로 인한 측정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모든 예비문항을 내용타당도 검증 과정에 사용하였다.

예비문항들은 3차에 걸쳐 내용 및 안면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1차 내용타당도 검증은 연구자와 상담심리 박사과정 3인이 각 문항의 구성 및 문항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중복문항을 삭제하였다. 2차 내용타당도 검증에서는 상담심리 박사과정 5인이 참여하여 각 문항의 내용타당도지수를 산출하였다. 3차 내용타당도 검증에는 심리학 교수, 상담심리전문가, 척도개발 경험이 있는 박사를 포함한 전문가 5인이 각 문항의 내용타당도지수를 산출하였다. 내용타당도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각 문항의 적합도를 1~4점으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3점 미만의 평점을 받은 문항은 개인적 면담 및 토론을 통해 문항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최종 예비문항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문항은 대학생 22명에게 사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문항의 이해도에 대해 체크하고 문항의 수용여부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총

66문항의 유기불안 예비척도가 완성되었다.

연구대상

유기불안척도의 최종 문항 선정을 위하여 광주와 전북 지역의 5개 대학에 재학 중인 42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참가자의 성별은 남 138명, 여 290명이었으며, 연령범위는 19세에서 29세(평균 21.81세)였다.

측정도구

유기불안 예비척도 6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험하는 유기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에서 불편했던 경험을 직접 작성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해당되는 정도를 1점 '전혀 아니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상에서 응답하였다.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최종 문항 선정을 위하여 2014년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전공 및 교양과목을 듣는 대학생들의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모든 참여자들에게 서면동의를 받은 후 설문이 실시되었으며, 설문의 응답은 평균 10분 ~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Likert의 내적합치성 기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문항과 전체 척도 점수 간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둘째,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KMO의 표준적합도(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와 Bartlett의 구형성검정 지표를 검토하였다. 셋째,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PASW Statistics 18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문항개발과정에서 선정된 66문항의 유기불안 예비척도의 문항을 검토하고 최종문항을 선정하기 위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Likert의 내적합치성 기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문항과 전체 척도 점수 간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유기불안척도의 문항-총점간의 상관은 문항별로 .20~.70까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전체 척도의 신뢰도 향상에 좋지 않은 6문항을 제거하였으며, 제거 후 전체 문항과 총점간의 상관은 평균 .5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과 공통성(communality), 그리고 고유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알아보았다. KMO의 표준적합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지표를 검토한 결과, KMO값은 .95, 그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치는 13902.41, $df=1770$, $p<.001$ 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3요인의 요인부하량과 공통성, 그리고 요인의 고유치를 확인한 결과 .4 이하의 요인부하량을 갖고 있거나 공통분이 .3 이하인 문항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각각 해당되는 2문항과 8문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특정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수가 더 많은 경우 요인별 문항수를 맞추기 위해 요인부하량의 절댓값이 낮은 순으로 문항을 제거하는 방법(성태제, 1998)을 적용하여 15문항을 삭제하였다. 이 외에도 남아있는 문

항들 중 비슷한 문항이 반복되는 4문항과 요인 내의 다른 문항에 비해 내용상 안면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 2문항을 추가로 제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66개의 예비척도 문항들 중 총 39개의 문항을 삭제하였으며, 27개의 문항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선정된 최종 문항을 3요인으로 고정된 후 최대우도법과 프로맥스 방식으로 요인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최종 완성된 척도의 KMO값은 .94, 그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치는 5621.025, $df=351$, $p<.001$ 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였다. 3요인 모델은 $\chi^2(273)=562.403$, RMSEA=.05로 모델 오류의 정도가 작고 양호한 모델로 확인되었다. 각 요인은 유기불안의 구성개념을 반영하여 ‘유기감’, ‘거절/거부하기’, 그리고 ‘의존/매달리기’로 명명하였다.

유기불안 척도의 신뢰도

유기불안 전체 척도와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2).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문항 내적일관성 신뢰도와 반분검사신뢰도, 그리고 검사-재검사신뢰도를 산출하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36명을 대상으로 4주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기존 점수와 상관분석을 한 결과 .67~.79($p<.001$)의 범주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기불안 척도가 문항 간 매우 강한 일관성을 갖고 있으며, 시간의 경과에도 안정성이 있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

본 연구는 예비연구를 통해 개발된 유기불

표 1. 유기불안 척도 최종 문항의 요인부하량

문항번호	문항	요인				
		1	2	3		
7	애인(또는 친한 친구)이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다.	.85	-.20	-.02		
19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 혼자 남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	.84	-.07	-.06		
4	종종 주위사람들로부터 버림받지 않을까 걱정하곤 한다.	.78	-.10	.08		
26	결국 나는 상처받고 버림받을 것 같다.	.74	.07	-.06		
유 기 감	16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상대방이 나에게서 멀어질까봐 괜히 걱정된다.	.67	-.05	.12	
	10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행복한 척 할 수 있으나, 혼자 남게 되면 처량하고 외로워진다.	.65	.02	.04	
	25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64	.23	-.13	
	11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까봐 두려울 때가 있다.	.64	-.04	.08	
	15	사람들과 있을 때 소외감과 불안감을 자주 느낀다.	.58	.25	-.03	
	24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56	.17	.03	
	8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편이다.	-.18	.77	.09	
	14	사람들과 표면적인 관계만 유지하는 편이다.	-.05	.75	-.01	
	거 절 / 거 부 하 기	17	누군가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친해지기 힘들다.	.00	.72	.01
		13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나도 모르게 거리를 두게 된다.	.02	.70	.06
2		나만의 공간(영역)에 들어오려는 사람과 멀어지려고 노력한다.	-.04	.69	-.07	
9		누군가를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이 어렵다.	.00	.68	.01	
3		누군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부담스럽다.	-.03	.57	.03	
20		내가 정작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의지하기 어렵다.	.15	.57	-.05	
27		내가 느끼기에 사람들은 나에게 거리감을 느끼는 것 같다.	.29	.50	-.05	
5		원만한 관계를 위해 되도록이면 내 주장을 하기보다 상대방의 주장을 더 따른다.	-.09	-.05	.82	
의 존 / 매 달 리 기		22	나는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편하다.	-.02	-.00	.70
		21	사람들에게 피해주기 싫어서 그들의 뜻에 맞추어 주려고 노력한다.	.04	-.01	.67
	18	자신 있게 자기주장을 해야 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장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09	.12	.60	
	23	나는 때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끌려다닌다는 기분이 든다.	.20	.09	.54	
	12	부당한 상황에서 화가 나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18	.16	.54	
1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는 것이 어렵다.	.11	-.14	.53		
6	나는 누군가 눈치를 주는 것 같으면, 그 순간 어린아이처럼 작아진다.	.26	-.02	.47		
고유값		8.05	6.89	6.29		

표 2. 유기불안 전체척도와 하위요인의 신뢰도

	유기불안 전체	유기감	거절/거부하기	의존/매달리기
Cronbach's α	.93	.91	.88	.85
Spearman-Brown 계수	.93	.91	.86	.84
검사-재검사 신뢰도	.74***	.67***	.73***	.79***

주. *** $p < .001$

안 척도의 구인타당도와 준거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요인 간 상관계수 및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고,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유기도식척도, 대인관계문제 척도, 그리고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의 상관을 검증하였다. 또한 심리적 유연성, 자존감 그리고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확인하여 유기불안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

유기불안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서울, 경기, 강원, 대전, 부산, 광주, 전북, 전남 지역의 10개 대학교 재학생 76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참가자의 성별은 남 325명, 여 435명이었으며, 연령범위는 19세~39세(평균 21.8세)였다.

측정도구

유기불안척도

예비연구에서 개발한 유기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유기불안척도는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험하는 유기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에서 불편했던 경험을 직접 작성

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버려질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된 ‘유기감’ 10개 문항, 유기불안으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假)분화적 특성과 태도를 보이는 ‘거절/거부하기’ 9개 문항, 그리고 유기불안으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미분화적 특성과 태도를 보이는 ‘의존/매달리기’ 8개 문항을 포함하는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점부터 5점까지 측정하는 5점 Likert 척도로, 각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기불안을 경험하는 정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유기불안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는 .93이었으며, 하위요인은 유기감 .91, 거절/거부하기 .86, 의존/매달리기 .84로 나타났다.

유기도식 척도

유기도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Young(1990)이 개발하고 조성호(2001b)가 번안한 초기 부적응도식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유기불안척도와의 수렴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기에 조성호(2001b)가 제안한 9개 문항이 아닌, 원척도 18개 문항을 모두 사용하였다. 1점부터 6점까지의 6점 Likert식 척도로,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4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문제척도

홍상항 등(2002)이 단축형으로 표준화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KIIP-SC)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5점 Likert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이며 총 40문항, 8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불안척도의 하위척도에 대한 수렴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냉담과 과순응성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문제척도의 Cronbach's α 는 .94였으며, 냉담과 과순응성은 각각 .84, .80이었다.

사회적 바람직성 측정도구

Paulhus(1994)가 개발하고, Lee(2003)에 의해 번안, 타당화 된 사회적 바람직성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0개 문항, 7점 척도(1= 사실이 아니다, 7= 매우 사실이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려는 경향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0이었다.

한국어판 수용-행동 질문지 II

유기불안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허재홍, 최명식, 진현정(2009)이 한국어판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어판 수용-행동 질문지II를 사용하였다. 심리적 유연성(psychological flexibility) 또는 경험적 회피(experiential avoidance)를 7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험적 회피 성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 모든 문항을 역채점하여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α 는 .77로 나타났다.

자존감 척도

유기불안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재(1974)에 의해 번안된 자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1점= 거의 그렇지 않다, 4점= 거의 그렇다)로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기존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8이었다.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

유기불안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하고, 임영진(2012)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삶의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5개 문항, 7점 척도(1점= 매우 아니다, 7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5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하여 2014년 9월 28일부터 설문지를 배포하여 10월 13일에 모두 회수하였

표 3. 표본 2의 설문지에 포함된 타당도 지표

	유기 불안	유기 도식	대인관계 문제	사회적 바람직성	심리적 유연성	자존감	삶의 만족도
설문지1	○	○		○		○	○
설문지2	○		○		○		

다. 대학생들의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모든 참여자들에게 서면동의를 받은 후 설문이 실시되었으며, 전체 설문이 완료되는데 평균 2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설문의 문항이 많을 경우 참가자의 응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표 3과 같이 서로 다른 타당도 지표를 포함하는 두 가지 종류의 설문지로 구성하여 배포하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첫째,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3요인의 신뢰도 및 요인 간 상관을 구하였다. 또한, 수렴-변별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타당도 지표와의 상관을 구하였다. 둘째, 유기불안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타당도 지표와의 상관을 구하였다. 모든 자료는 AMOS 18과 PASW Statistics 18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유기불안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측정하고자 먼저 3개 요인이 유기불안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구인을 대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3개의 모형을 구성한 후 각 모형을 비교하였다. 모형 1은 유기불안을 형성하는 27개 항목에 대해 1요인 모형으로 측정하였으며, 모형 2는 27개 문항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3개 요인에 대해 측정하였다. 모형 3은 3개의 요인들이 유기불안이라는 하나의 구인으로 묶일 수 있다고 가정한 위계적 2차 요인모형(hierarchical factor model)으로 측정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χ^2 과 *df*, SRMR, RMSEA, CFI, NNFI, 그리고 AIC를 모형의 평가를 위한 적합도 지수로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SRMR은 .08 이하일 때 적합한 모형으로 평가되며(Hu & Bentler, 1998, 1999), RMSEA는 .05 미만일 때 좋은 적합도로, .08 미만일 때 괜찮은 적합도로 평가된다(Browne & Cudeck, 1993). CFI와 NNFI는 높은 값일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며, .90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Bentler, 1990; Tucker & Lewis, 1973). AIC는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모형을 비교할 때 주로 사용되며, 더 적은 AIC값을 가지는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다(Burnham & Anderson, 2004). 본 연구에서 검증한 3종류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4와 같다. 모형 1은 적합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나, 모형 2는 NNFI와 CFI값이 각각 .91, .92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으며, RMSEA의 90% 신뢰구간을 보았을 때 최소값이 .05, 최대값이 .06으로 적절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SRMR역시 .06으로 .08 이하로 나타났으며, AIC값도 모형 1에 비해 더 작은 값을 가지고 있어, 모형 2가 더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모형 3)은 모형 2와 동일한 적합도로 나타나 3개의 요인이 유기불안이라는 하나의 구인을 측정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모형 3의 요인구조 모형과 모수추정치는 그림 1, 표 5와 같다.

1) 모형 3은 일방성의 포화모형(saturated model)인 모형 2와 동치모형(equivalent models)으로, 도구변수 대신에 상위요인을 도입해서도 포화가 유지되며 수리통계학적으로 똑같은 값의 적응수치를 보이는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하위요인이 유기불안이라는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모형 3을 최종 선택하였다.

표 4.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 적합도 (N = 760)

모형	χ^2	df	NNFI	CFI	RMSEA	SRMR	AIC
모형1 (1요인모형)	2511.899	321	.74	.76	.1 (.09-.1)	.09	2679.90
모형2 (3요인모형)	1092.533	318	.91	.92	.06 (.05-.06)	.06	1266.53
모형3 (위계적2차요인모형)	1092.533	318	.91	.92	.06 (.05-.06)	.06	1266.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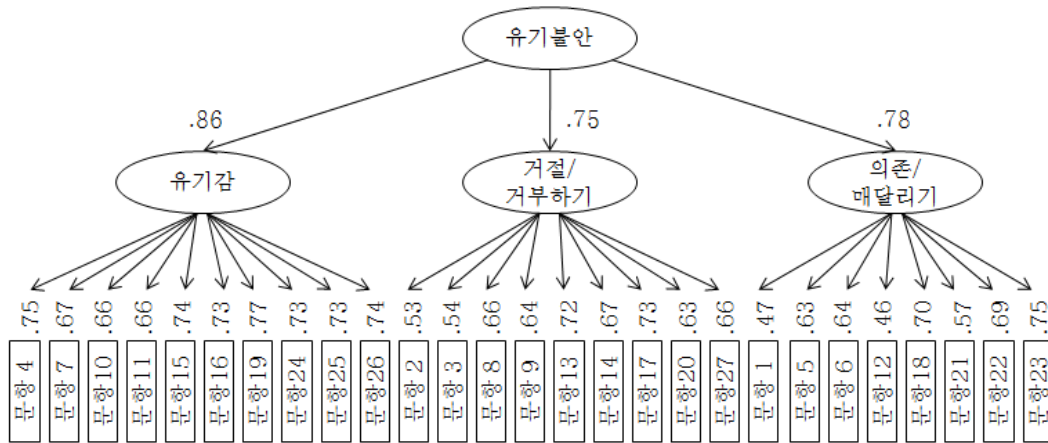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위계적 2차 요인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다음으로, 유기불안 척도가 조작적으로 정의된 구성요인을 실제로 측정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유기도식, 대인관계 문제척도 중 냉담, 과순응성의 하위척도, 그리고 사회적 바람직성과 유기불안의 상관을 검증하여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유기불안척도는 유기도식($r=.77, p<.001$), 대인관계문제($r=.80, p<.001$)와 높은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사회적 바람직성($r=-.11, p<.05$)과는 약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기불안 척도의 수렴·변별타당도에 대한 지지적 증거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유기불안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수용-행동 질문지, 자존감 척도 그리고 삶의 만족도 척도와 유기불안척도 간의 상관분석을 하여 표 7에 제시하였다. 유기불안척도는 심리적 유연성($r=-.62, p<.001$), 자존감($r=-.60, p<.001$), 그리고 삶의 만족도($r=-.41, p<.0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기불안 척도가 심리적 유연성, 자존감, 그리고 삶의 만족도와 공준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해준다.

표 5. 잠재변수와 각 문항 간의 모수추정치

요인	문항번호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임계치
유기감	4	.75 ^{***}	1		
	7	.67 ^{***}	.89	.04	21.52
	10	.66 ^{***}	.91	.05	18.04
	11	.66 ^{***}	.93	.05	18.04
	15	.74 ^{***}	.87	.04	20.57
	16	.73 ^{***}	.92	.05	20.50
	19	.77 ^{***}	.98	.05	21.45
	24	.73 ^{***}	.92	.05	20.13
	25	.73 ^{***}	.95	.05	20.03
	26	.74 ^{***}	.85	.04	20.33
거절/거부하기	2	.53 ^{***}	1		
	3	.54 ^{***}	1.15	.09	13.04
	8	.66 ^{***}	1.25	.10	13.08
	9	.64 ^{***}	1.40	.11	12.80
	13	.72 ^{***}	1.51	.11	13.75
	14	.67 ^{***}	1.28	.10	13.18
	17	.73 ^{***}	1.51	.11	13.81
	20	.63 ^{***}	1.41	.11	12.64
27	.66 ^{***}	1.37	.11	13.09	
의존/매달리기	1	.47 ^{***}	1		
	5	.63 ^{***}	1.19	.11	11.10
	6	.64 ^{***}	1.47	.13	11.22
	12	.46 ^{***}	1.02	.11	9.41
	18	.70 ^{***}	1.51	.13	11.67
	21	.57 ^{***}	1.12	.11	10.61
	22	.69 ^{***}	1.47	.13	11.64
	23	.75 ^{***}	1.62	.13	12.03

주. *** $p < .001$

표 6. 수렴·변별타당도지표와 유기불안척도의 상관관계 (n = 380)

	유기불안 전체	유기감	거절/거부하기	의존/매달리기
유기도식	.77***	.80***	.57***	.51***
대인관계문제	.80***	.70***	.64***	.62***
- 냉담	.63***	.47***	.70***	.42***
- 과순응성	.66***	.58***	.39***	.69***
사회적바람직성	-.11*	-.16**	-.03	-.08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7. 공존타당도지표와 유기불안척도의 상관관계 (n = 380)

	유기불안 전체	유기감	거절/거부하기	의존/매달리기
심리적 유연성	-.62***	-.62***	-.48***	-.39***
자존감	-.60***	-.55***	-.46***	-.48***
삶의 만족도	-.41***	-.40***	-.32***	-.31***

주. * $p < .05$, ** $p < .01$, *** $p < .001$

논 의

유기불안은 일찍이 초기의 정신 역동적 이론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론 및 실제에서 그 존재와 영향력에 대해 언급되고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유기불안을 측정하는 기존의 도구들은 측정하는 대상이나 구성개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기불안을 다루는 문헌들과 사례연구들을 중심으로 유기불안에 대해 정의하고 구성개념을 정리한 후 이를 반영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그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기불안 척도를 개발하고자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유기불안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구성개념을 명확히 하고, 문헌리뷰, 기존 척도 분석, 상담자 및 대학생

응답의 분석을 통해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상담심리 박사 과정생에 의해 2차례에 걸친 내용타당도 검증 후 5명의 심리전문가와 2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3차 내용타당도 및 안면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학생 428명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하여 총 척도점수와 문항 간 상관분석, 그리고 요인분석을 통해 세 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총 27개 문항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신뢰도 검증 결과 개발된 유기불안 척도는 문항 간 일관성이 있음이 검증되었다. 또한 4주 후 진행된 재검사결과와 기존 점수와의 상관분석 결과 유기불안 척도가 시간의 경과에도 안정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위요인 중 유기감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상관계수를 보인 것은 유기감이 태도적 부분을 측정하는 다른 요인들과 달리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고 있어 내적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미묘한 변화가 일어난 것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둘째, 예비연구를 통해 개발된 유기불안 척도의 구인타당도와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학생 76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 결과 개발된 척도가 세 가지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요인들은 유기불안이라는 하나의 통합된 구인을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기불안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타당도지표들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기불안은 유기도식, 그리고 대인관계문제와 높은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사회적 바람직성과는 낮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기불안척도와 유기불안의 하위 구성요인인 유기감, 거절/거부하기, 의존/매달리기가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바람직성과는 독립된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는 데 지지적 증거를 제공한다.

특히 유기불안과 유기도식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어 유기불안이 측정하는 구인과 유기도식이 측정하는 구인의 일치근거가 확인되었다. 유기도식 척도는 기존의 연구들(안하얀, 서영석, 2011; 이지영, 손정락, 2009)에서 초기 성인기에 경험하는 유기불안 관련 구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유기도식 척도와 높은 정적상관은 유기불안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을 잘 측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추가적으로, 유기불안척도의 하위요인들 중 거절/거부하기, 의존/매달리기의 하위요인과 유기도식은 유기감과 유기도식과의 상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유기도식 척도가 거절/거부하기와 의존/매달리기의 특징과 관련되는 문항은 포함하고 있으나 유기감의 측정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을 재확인해준다. 이 외에도 유기불안의 하위요인 중 거절/거부하기는 대인관계문제 중 냉담과, 그리고 의존/매달리기는 과순응성과 높은 상관이 있었던 점은 유기불안의 정도에 따라 대인관계의 양식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기존의 연구들(오남경, 권혁철, 이영순, 2012; Alonso-Arbiol et al., 2002; Maysseless et al., 1997)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전체 척도들과의 관계에서 높은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으나, 각 하위요인들과 서로 다른 상관을 보이는 것은 유기불안척도의 각 하위요인이 일치근거와 변별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가 있음을 시사한다.

유기불안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앞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유기불안척도와 심리적 유연성, 자존감, 그리고 삶의 만족도의 공존타당도를 검토한 결과, 유기불안은 심리적 유연성, 자존감, 그리고 삶의 만족도와 높은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높은 유기불안을 경험하는 사람은 낮은 심리적 유연성, 낮은 자존감, 그리고 낮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할 가능성을 예측하게 한다. 유기불안의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리적 유연성과 거절/거부하기, 의존/매달리기의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은 유기불안으로 인한 대상관계 패턴이 외적 태도로 더 많이 나타날수록 심리적 유연성이 더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의존/매달리기보다 거절/거부하기의 패턴을 사용하는 사람은 경험을 더 회피하고 현재에 접촉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이 예측된다. 심리적 유연

성이 대인관계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전략(강동아, 2012) 및 부정적 사고의 영향력(오은혜, 조용래, 2014)과 관계가 있다는 점은 유기불안과 심리적 유연성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자존감과 삶의 만족감은 유기불안 전체 점수와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이 있었는데, 특히 유기감은 다른 하위요인에 비해 보다 높은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유기감이 강할수록 긍정적인 자기감을 가지기보다는 불안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여(Solomon, Greenberg, & Pyszczynski, 1991) 자기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할 때 쉽게 무너질 수 있으며,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자존감은 자기를 방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관점(Solomon et al., 1991)에서 생각해 보면, 거절/거부하기와 의존/매달리기는 유기불안에 대한 방어로서 형성되었으며 유기불안의 위협이 있을 때 대처 행동으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있기에, 유기감이 다른 하위요인에 비해 자존감과 더 높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유기불안이 자기혐오와 수치심을 가지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Celani, 2010; Ogden, 2010)과, 유기불안이 높은 사람은 외부의 대상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대상에 매달려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강하며 무의식적 끌림에 의해 나쁜 대상관계를 반복한다고 주장들(Dicks, 1967; Donovan, 2008; Framo, 1992; Scharff & Scharf, 1991/2003; Tosone, 2005; Zinner, 1976)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로 보이며, 추가적 연구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유기불안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의 개발을 통해 유기불안의 구성개념을 측정할 수 있게 된 점, 그리고 유기불안과 다른

심리적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발된 유기불안 척도를 활용한다면 초기 성인기의 유기불안의 특징과 그 영향력에 대한 이해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며, 이론적 논의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기불안은 대인관계에서 더 선명히 드러나며, 유기불안의 각 특성에 따라 그 양상이 다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유기불안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어떠한지에 대해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를 사용한다면,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에 대해 유기불안이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유기불안으로 인해 내담자가 사용하는 부적응적 대응방식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내담자의 이해 및 상담의 과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유기불안으로 인한 갈등의 이해 및 치료전략의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추가적으로, 정신분석의 마지막에는 항상 대상과의 분리나 대상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암시된다(Quinodoz, 2005/2013)는 점에서 유기불안은 상담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적인 주제임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대상관계적 관점에서 상담이 진행될 때, 전이 안에서 일어나는 받아들임과 버림을 둘러싼 상담자와 내담자의 무의식적 갈등(Basili & Sharpin de Basili, 2005)을 다루기 위해서 상담자는 전이관계에 의식적이 되어야 한다. 이 때 상담자가 자신의 유기불안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면 전이관계를 치료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내담자의 유기불안을 자극

하여 상담에 저항하거나 의존적이 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 내담자군의 유기불안 뿐 아니라 상담자의 유기불안에 대해 점검해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접근법을 확인한다면, 상담자 교육과 역량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초기 성인기의 대학생 표본만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유기불안은 유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이론가 및 분석가들이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사례를 통해 관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폭넓은 표집을 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유기불안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표준화 작업을 거치지 않아 척도의 점수만으로는 유기불안의 정도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유기불안의 척도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표준화 작업이 차후에 진행된다면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기불안척도가 다양한 집단에서 어떻게 반응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임상집단과 일반집단의 차이 및 개인의 특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강동아 (2012). 공대생들의 수용전념 집단상담이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대처전략에 미치는 영향. *학생생활 연구*, 1, 1-27. 금오공

과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김남걸 (2001). Likert척도 개발을 위한 문항선정 방법의 비교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미란 (2002). 대학생 교우관계의 사례분석: 대상관계이론의 유기불안 관점에서.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환, 문수백, 홍상황 (2013). 심리검사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김은영 (2009). 경계선 증후군 청소년의 단기 상담사례연구-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단일호)*, 8, 57-78.

대한간호학회 (1996). *간호학대사전*.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석지은 (2008). 애착과 결혼만족도와 의 관계: 심리도식을 매개변인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태제 (1998). *문항제작 및 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안하얀, 서영석 (2011). 성인애착과 Young의 단절 및 거절 도식에 따른 집단 분류와 우울, 불안 및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집단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943-969.

오남경, 권혁철, 이영순 (201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분리개별화 및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분리불안과 함입불안을 중심으로. *재활심리연구*, 19(1), 85-102.

오은혜, 조용래 (2014). 인지적 탈융합 처치와 심리적 유연성이 대학생의 발표불안 반응 및 주의 편향 감소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2), 341-364.

이설아 (2009). 유기도식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

- 위 논문.
- 이주혜 (1980). 유아의 낮가림 및 격리불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와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지영, 손정락 (2009). 대학생의 초기 부적응 도식과 정신병리적 정서간의 관계. *스트레스연구*, 17(1), 11-17.
- 임영진 (2012).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경찰공무원, 대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877-896.
- 임종렬 (1993). 유기불안의 공유영역; 사례연구. *사회복지연구*, 21, 79-103.
- 임종렬 (1999). 대상중심이론 가족상담. 서울: 한국가족복지연구소
- 임종렬, 김순천 (2001). 대상중심 경계선 가족치료. 서울: 한국가족복지연구소.
- 전병재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 109-129.
- 정연옥 (2007). 이혼가정자녀의 부모자녀관계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유기공포, 상실지각, 자존감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복희, 박성옥 (1992). 어머니의 격리불안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13, 16-37.
- 조성호 (2001a). 초기 부적응 도식과 방어유형 및 대인관계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3), 39-54.
- 조성호 (2001b).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77-192.
- 탁진국 (2014).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2판. 서울: 학지사.
- 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교육심리학용어사전*. 서울: 학지사
- 허재홍, 최명식, 진현정 (2009). 한국어판 수용-행동 질문지 II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861-878.
- 홍상황,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KIIP-SC)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23-240.
- Alonso-Arbiol, I., Shaver, P. R., & Yáñez, S. (2002). Insecure attachment, gender roles, and interpersonal dependency in the Basque Country. *Personal Relationships*, 9, 479-490.
- Basili, R. M., & Sharpin de Basili, I. (2005). Fairbairn's theory, borderline pathology, and schizoid conflict. In J. S. Scharff and D. E. Scharff (Eds.), *The Legacy of Fairbairn and Sutherland: Psychotherapeutic Applications* (pp. 129-139). New York: Routledge.
- Beck, R. (2006). God as a secure base: Attachment to God and theological exploration.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4(2), 125-132.
- Beck, R., & McDonald, A. (2004). Attachment to God: The Attachment to God Inventory, tests of working model correspondence, and an exploration of faith group difference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2, 92-103.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ic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Brisch, K. H. (2003). 애착장애의 치료: 이론에서 실제까지 [*Bindungsstörungen Von der Bindungstheorie zur Therapie*]. (장휘숙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1999에 출판).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 Bowlby, J. (1960). Separation anxiet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41, 89-113.
- Burnham, K. P., & Anderson, D. R. (2004). Multimodel inference: understanding AIC and BIC in model selection.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33(2), 261.
- Campbell, L., Simpson, J. A., Boldry, J., & Kashy, D. A. (2005). Perceptions of Conflict and Support in Romantic Relationships: The Role of Attachment Anxie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3), 510-531.
- Campi, M., Besuschio, A., Oswald, L., Basili, I. S., & Basili, R. M. (2014). Fairbairn in Argentina: the “Fairbairn Space” in the Argentine Psychoanalytic Association(APA). In G. S. Clarke and D. E. Scharff (Eds.), *Fairbairn and the Object Relations Tradition* (pp. 101-113). London: Karnac.
- Cassidy, J., & Berlin, L. J. (1994). The insecure/ambivalent pattern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Child Development*, 65, 971-981.
- Celani, D. P. (2006). 사랑의 환상 [*The illusion of love*]. (김영호, 김도애, 이영호, 김순천 역). 서울: 한국가족복지연구소. (원전은 1995에 출판).
- Celani, D. P. (2010). *Fairbairn's object relations theory in the clinical setting*.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Celani, D. P. (2011). 부모로부터의 독립 - 리빙홈 [*Leaving home - The art of separating from your difficult family*]. (김영호, 김순천, 남영옥 역). 서울: 한국가족복지연구소. (원전은 2005에 출판).
- Chodorow, N. J. (2008). 모성(母性)의 재생산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Psychoanalysis and the Sociology of Gender*]. (김민예숙, 강문숙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전은 1978에 출판).
- Coddington, D., & Wallick, M. M. (2002). 소아정신의학: 아동전문 치료사를 위한 지침서 [*Child Psychiatry: A Primer for Those Who Work Closely with Children*]. (진혜경, 이경숙, 박영숙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0에 출판).
- Dicks, H. V. (1967). *Marital tensions*. New York: Basic Books.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onovan, J. M. (2008). 단기 대상관계 부부치료 [*Short-Term Object Relations Couples Therapy: The Five-Step Model*]. (이재훈, 임영철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전은 2003에 출판)
- Doumas, D. M., Pearson, C. L., Elgin, J. E., & McKinley, L. L. (2008). Adult Attachment as a Risk Factor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The “Mispairing” of Partners’ Attachment Sty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3(5), 616-634.
- Fairbairn, W. R. D. (1944). Endopsychic structure considered in terms of object relationships. In W. R. D. Fairbairn (Ed.), *Psychoanalytic Studies of the Personality* (pp. 82-136).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 Fairbairn, W. R. D. (1946). Object-relationships and dynamic structure. In W. R. D. Fairbairn (Ed.), *Psychoanalytic Studies of the Personality* (pp. 137-151).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Fairbairn, W. R. D. (1949). Steps in the Development of an Object-Relations Theory of the Personality. In W. R. D. Fairbairn (Ed.), *Psychoanalytic Studies of the Personality* (pp. 152-161).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Fairbairn, W. R. D. (1963). Synopsis of an object-relations theory of the personalit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44, 224-225.
- Fairbairn, W. R. D. (1994). From instinct to self: Selected papers of W. R. D. Fairbairn (Vols. 1-2). In E. F. Birtles & D. E. Scharff (Eds.), Northvale, NJ: Aronson.
- Fonagy P. (1991). Thinking about thinking: some clinical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in the treatment of a borderline patient.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72(4), 639-656.
- Fonagy, P., & Target, M. (2014). 정신분석의 이론들: 발달 정신병리학적 관점 [*Psychoanalytic theories: perspective from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이효숙 역). 서울: 도서출판 NUN. (원전은 2003에 출판).
- Framo, J. L. (1992). *Family-of-origin therapy: An intergenerational approach*. New York: Brunner/Mazel.
- Freud, S. (2006).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 [*New Introductory Lectures on Psycho-Analysis*]. (김숙진 역). 서울: 문예출판사. (원전은 1933에 출판).
- Freud, S. (2010). 정신 병리학의 문제들 [*On Psychopathology*]. (황보석 역). 경기: 열린책들. (원전은 1926년에 출판).
- Godbout, N., Lussier, Y., & Sabourin, S. (2006). Early abuse experiences and subsequent gender differences in couple adjustment. *Violence and Victims*, 21, 744-760.
- Gunderson, J. G., & Kolb, J. E. (1978). Discriminating features of borderline pati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5, 792-796.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u, L. T., & Bentler, P. M. (1998). Fit indice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Sensitivity to underparameterized model misspecification. *Psychological Methods*, 3, 424-453.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Klein, M. (1937). Love, Guilt and Reparation. In M. Klein (Ed.), *Love, Guilt and Reparation: and other works 1921-1945* (pp. 306-343). New York: Free Press.
- Klein, M. (1961). *Narrative of a child Analysis: The Conduct of the Psycho-Analysis of Children as seen in the Treatment of a Ten-year-old Boy*. New York: Free Press.
- Kurdek, L. A., & Berg, B. (1987). Children's Beliefs About Parental Divorce Scale: Psychometric Characteristic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5), 712-718.

- Lee, D. G. (2003). *A cluster analysis of procrastination and cop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USA.
- Mahler, M. (1968). *On human symbiosis and the vicissitudes of individuation: Vol. 1. Infantile psycho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Masterson, J. F. (1972). *Treatment of the Borderline Adolescent: A developmental approach*. New York: Wiley-Interscience.
- Masterson, J. F. (1976). *Psychotherapy of the borderline adult: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ew York: Brunner/Mazel.
- Masterson, J. F. (1978). The borderline adult: therapeutic alliance and transference.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5(4), 437-441.
- Masterson, J. F. (2000). 참 자기, 심리치료 과정에서 마음의 병을 치료해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The Search for the Real Self: Unmasking the Personality Disorders of Our Age*]. (임혜련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전은 1988에 출판).
- Mayseless, O., Sharabany, R., & Sagi, A. (1997). Attachment concerns of mothers as manifested in parental, spousal, and friendship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4, 255-269.
- Ogden, T. H. (2010). Why read Fairbair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91, 101-118.
- Paulhus, D. L. (1994). *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 Reference manual for BIDR version 6*.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Vancouver, Canada.
- Quinodoz, J. M. (2013). 리딩 프로이트 [*Lire Freud*]. (PIP정신분석연구소 역). 서울: 도서출판 NUN. (원전은 2005에 출판).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arff, J. S. (2005). Satisfactory, exciting, and rejecting object in health and sex. In J. S. Scharff and D. E. Scharff (Eds.), *The Legacy of Fairbairn and Sutherland: Psychotherapeutic Applications* (pp. 80-88). New York: Routledge.
- Scharff, D. E., & Scharf, J. S. (2003). 대상관계 부부치료 [*Object Relations Couple Therapy*].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전은 1991에 출판)
- Solomon, S., Greenberg, J., & Pyszczynski, T. (1991). A terror management theory of social behavior: The psychological functions of self-esteem and cultural worldviews.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pp. 261-302). San Diego: Academic Press.
- Stevens, G., & Gardner, S. (1994). *Separation anxiety and the dread of abandonment in adult males*. Westport, CT: Praeger.
- Stopa, L., Thorne, P., Waters, A., & Preston, J. (2001). Are the short and long forms of the Young schema questionnaire comparable and how well does each version predict psychopathology scores?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An International Quarterly*, 15, 253-271.
- Tosone, C. (2005). The Nemesis within: Women, relationship addiction, and the moral defence. In J. S. Scharff and D. E. Scharff (Eds.),

- The Legacy of Fairbairn and Sutherland: Psychotherapeutic Applications* (pp. 158-168). New York: Routledge.
- Tucker, L. R., &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 1-10.
- Young, J. E. (1990).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 A schema-focused approach*.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Press.
- Zinner, J. (1976). The Implications of Projective Identification for Marital Interaction. In H. Grunebaum & J. Christ (Eds.), *Contemporary Marriage: Structure, Dynamics, and Therapy*. (pp. 293-308). Boston: Little, Brown.
- 원 고 접 수 일 : 2015. 10. 5
수정원고접수일 : 2015. 11. 9
게 재 결 정 일 : 2015. 11. 16

Development of Abandonment Anxiety Scale and Its Validation

Oh, Nam-Kyong

Lee, Young-So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aimed at developing the abandonment anxiety scale and verifying its validity. In order to build items about the scale, pilot questions were devised by searching the literature, analyzing the existing scales, conducting discussions among groups of students and counselors, and reviewing semi-structured questionnaires. 66 items were selected by the content and face validity. EFA on response from 428 students extracted three sub-factors(i.e., emotion of abandonment, distance/denial, and dependence/excitingness). Internal consistency of the full scale and sub-factors were .93 and .85~.91, respectively. CFA on the responses regarding 760 students were used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scale and showed that the three-factor model was adequate. After examining interrelations among abandonment anxiety, abandonment schema, interpersonal problems, social desirability, psychological flexibility,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convergent, discriminant, and concurrent validity were verified. Finally,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scale and the necessity of follow-up studies are discussed.

Key words : *Abandonment Anxiety, Emotion of Abandonment, Object Relations Pattern*